

광주FC 우승 원동력은 '외국인 4인방'

펠리페, 현재 19골
K2리그 득점 선두

윌리안, 측면 공격 활기
드리블 능력 탁월

하칭요, 스피드와
왕성한 활동량 자랑

아술마도프, 끈끈한 수비
리그 최소 실점 기록



광주 FC 펠리페



광주 FC 윌리안



광주 FC 하칭요



광주 FC 아술마도프

2019 K리그2 우승을 확정지은 프로축구 광주FC의 외국인 4인방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는 창단 이후 외국인 선수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올 시즌엔 펠리페와 윌리안, 하칭요, 아술마도프 등의 활약으로 우승할 수 있었다.

광주는 지난 1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33라운드에서 안양을 상대로 4-0 완승을 거뒀다. 2위 부산이 다음날 같은 라운드 안산에게 0-2로 지면서 광주는 잔여경기 상관없이 우승이 확정됐다.

팀 창단 최초 우승과 함께 K리그2 최다득점(13골 9득), 팀 최초 6연승(14-19R), 단일 시즌 최다승(20승) 등 스텔 기록 등을 만들어낸 광주의 역대급 경기력엔 외국인 4인방이 큰 기여를 했다.

광주 우승의 일등공신은 공격수 펠리페다. 펠리페는 지난해 여름 광주에 합류해 15경기 7골 2도움으로 무난한 활약을 펼쳤지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다.

그러나 올 시즌 들어 달라졌다. 3월 31일 개막전부터 마수걸이 골을 시작으로 구단 최초 퍼펙트 헤트트릭(머리+오른발+왼발) 달성과 5경기 연속득점 등 올 시즌 머리와 오른발, 왼발을 가리지 않고 공격에 파괴력을 더하며 괴물 스트라이커로 자리잡았다.

펠리페는 3경기가 남아 있는 현재 19득점으로 2위 지음(18득점·수원FC)을 제치고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의 골 행진은 광주 우승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팀 득점이 다소 적은 광주 입장에서 펠리페의 득점이 있었기에 승수를 많이 쌓았다는

게 광주 관계자의 설명이다. 2선 자원인 윌리안과 하칭요의 활약도 빼어났다.

윌리안은 화려한 개인기와 드리블로 광주의 측면 공격에 활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물론 적극적인 수비 가담 능력도 보여줬다. 올 시즌 23경기에 출장해 8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6경기에서는 4골 1도움으로 후반기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올 여름 합류해 6경기에 출장한 하칭요는 날렵한 체구를 이용한 스피드와 왕성한 활동량, 날카로운 키패스를 자랑한다. 특히 흠에서 치러졌던 지난 9

월 15일 아산전과 부천전에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주춤했던 광주의 상승세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창단 첫 외국인 수비수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아술마도프는 올 시즌 합류해 광주의 끈끈한 수비를 지휘하며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는 수비 위치선정과 안정적인 볼처리, 정확한 패스를 이용한 빌드업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

올 시즌 광주가 기록한 무실점 17경기 가운데 12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클린시트와 리그 최소실점(26실

점)을 이끌었다. 최근엔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에서 2경기 연속 폴타임을 소화하는 등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가 올 시즌 완벽한 밸런스 축구를 선보이며 조기 우승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에는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외국인 4인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부 리그를 평정한 광주 외국인 4인방이 내년 1부 리그에서도 빼어난 활약을 보여줄 지 주목된다.

최동환 기자 cstone@nlbo.com



김길두 대한불링협회장 대한민국체육상 공로상



보성 출신의 김길두 대한불링협회장(69·사진)이 대한민국체육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2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김길두 대한불링협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7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 및 2019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 회장은 불링저변 확대를 통해 국민체육으로서 불링종목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향인 보성군체육회 삼미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체육계에 본격 진입한 김 회장은 지난 2001년 전남불링협회장을 시작으로 한국실업불링협회장, 동아시아불링협회 회장을 거쳐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불링협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김 회장은 전남불링협회장 재임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진석수산)에 불링 실업팀을 창단, 구단주로서 선수들의 처우 등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며 전남실업불링 발전에 공헌했다.

또 대한불링협회장으로 지내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7·은·1·동·6개를 획득하며 불링종목의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불링 대회본부장으로 소임을 다하며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국제적으로도 동아시아불링협회 회장,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스포츠 외교 역량강화 및 한국불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김길두 대한불링협회장은 "선수들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이런 큰 영광을 받았다"며 "앞으로 선수들의 선전과 불링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한민국체육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체육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최동환 기자

배드민턴 정경은-백하나 중국 꺾고 덴마크오픈 금

배드민턴 여자복식 정경은(김천시청)-백하나(MG새마을금고) 조가 덴마크오픈을 점수했다.

정경은-백하나 조는 20일(현지시간) 덴마크 오픈세 스포츠포크에서 열린 덴마크오픈 배드민턴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쉐칭첸-지아이판(중국) 조를 세트스코어 2-1(9-21 21-19 21-15)로 제압했다.

세계랭킹이 45위에 불과한 정경은-백하나 조는 전날 랭킹 1위 마츠모토 마유-나기하라와키나(일본) 조를 쓰러뜨린 데 이어 랭킹 3위 쉐칭첸-지아이판 조마저 넘어서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5월부터 호흡을 맞춘 두 선수는 8월 인도 하이데라바드 오픈에 이은 두 번째 우승으로 여자복식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두 선수의 등장으로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향한 내부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규정상 한 국가에서 2개의 팀이 출전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랭킹 16위 안에 들어야 한다. 뉴스

최동원상 후보 확정... 린드블럼·양현종·김광현 심사위원 심사 70%, 팬 투표 30% 종합...11월 5일 수상자 발표



두산 린드블럼 KIA 양현종 SK 김광현

가 많다. 투구 이닝에선 린드블럼이 194%이닝으로, 김광현(190%이닝)과 양현종(184%이닝) 보다 앞선다.

다승에서도 20승의 린드블럼이 김광현(17승)과 양현종(16승)보다 우위다.

탈삼진 역시 린드블럼이 189개를 기록해 김광현(180개), 양현종(163개)을 따돌렸다.

그러나 퀄리티스타트에서는 24차례를 기록한 김광현이 22번의 양현종과 린드블럼을 제쳤다.

평균자책점에서는 2.29의 양현종이 가장 돋보인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심사위원 심사 70%, 팬 투표 30%를 종합해 결정된다. 11월 5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심사위원 심사를 70%, 팬 투표 30%를 종합해 결정된다. 11월 5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심사위원 심사를 70%, 팬 투표 30%를 종합해 결정된다. 11월 5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두산 린드블럼 VS 키움 요키시... KS 1차전 맞대결

린드블럼, 2019시즌 20승3패 평균자책점 2.50
요키시, 두산전 5차례 2승2패 평균자책점 3.19

한국시리즈(KS·7전4승제)가 조쉬 린드블럼(32·두산 베어스)과 에릭 요키시(30·키움 히어로즈)의 맞대결로 막이 오른다.

김태형 두산 감독과 장정석 키움 감독은 2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가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1차전 선발 투수를 공개했다.

김태형 감독은 "1차전 선발은 린드블럼"이라며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린드블럼을 1선발로 택했다"고 밝혔다.

장정석 감독은 "요키시가 1차전에 나선다. 모든 면에서 두산전 상대 성적이 월등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린드블럼은 2019시즌 최고의 투수였다. 30경기에 등판, 20승3패 평균자책점 2.50을 수확했다. 다승, 승률(0.870), 탈삼진(189) 부문에서 1위에 올랐고, 평균자책점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1차전이 열리는 잠실에서는 '무적'에 가까웠다. 잠실에서 나선 19경기에서 11승2패 평균자책점 2.67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시즌 막판 체력이 떨어져 9월 이후 나선 4경기에서 승리없이 2패 평균자책점 5.11을 기록했지만, 최근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컨디션을 끌어 올렸다는

평가다. 지난 16일 상무와의 연습경기에서는 5이닝 무피안타 무사구 무실점을 기록했다. 두산 전력분석원은 린드블럼의 투구에 대해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고, 공 끝의 움직임도 좋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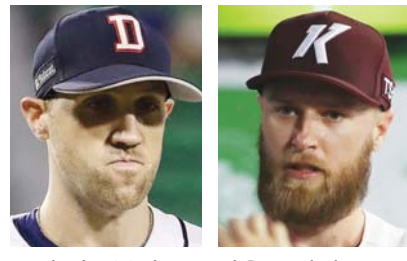
린드블럼에게는 지난해의 아쉬움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다. 지난해 SK 와이번스와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로 출격한 린드블럼은 6.1이닝 5실점으로 부진, 패전투수가 됐다. 믿었던 린드블럼이 무너지면서 두산은 시리즈 첫 판을 내주며 끌려갔고, 결국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다.

자신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키움 타자들을 어떻게 제압하느냐가 관건이다. 린드블럼은 정규시즌 키움전에서 4경기 2승1패 평균자책점 4.13에 그쳤다.

키움 서건창은 린드블럼에게 타율 0.455(11타수 5안타), 1홈런을 때려냈다. 박병호도 타율 0.333(9타수 3안타), 2홈런을 기록했고 제리 샌즈도 타율 0.333(12타수 4안타), 1홈런으로 린드블럼의 볼을 잘 쳤다.

키움이 꺼낸 카드는 좌완 요키시다. 키움은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 모두 1차전 선발로 제이크 브리검을 내세웠지만, 이번엔 요키시를 선택했다.

요키시는 정규시즌 13승8패 평균자



두산 린드블럼 키움 요키시

책점 3.13을 기록했다. 두산도 요키시를 의식한다. 김태형 감독은 키움 엔트리에서 '지우고 싶은 선수'로 요키시를 지목했다. 김 감독은 "우리 팀이 좌완에 약했다. 준비를 잘 했지만, 요키시는 부담스러운 투수"라고 짚었다.

요키시의 경계 대상은 호세 페르난데스, 최주환, 김재환, 김재호 등이 꼽힌다. 페르난데스는 요키시에게 타율 0.308(13타수 4안타)를 쳤고, 최주환은 타율 0.333(12타수 4안타)를 기록했다. 김재환도 홈런 1개를 포함해 타율 0.333(12타수 4안타)를 때려냈다. 김재호는 타율 0.333(9타수 3안타)를 기록했다.

가을야구의 긴장감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포인트다. 요키시는 LG와 준플레이오프에서 2.1이닝 3실점으로 조기 강판됐다. SK와 플레이오프에서는 4.2이닝 1실점으로 5이닝을 채우지 못했다.

뉴스